

### 한국-탈레반 '대면협상' 어떻게 돼가나

# 부족원로들 보장 '중립지대'서 만날듯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들이 납치된 지 16일째인 3일 인질석방을 둘러싼 우리 대표단과 탈레반 지도부 간 '대면협상'이 임박해지면서 향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탈레반측이 보이는 적극성을 감안하면 '인질사태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하지만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더 우세하다.

◇인제 어디서 만나나=한국대표단은 2일 탈레반 지도부와 전화통화를 갖고 직접 협상을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외신은 전했다.

한국인 인질이 억류된 아프간 가즈니주의 탈레반 사령관 몰라 사비르 나시르는 2일 미국 CBS방송과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한국 관리들과 대면협상 일정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한

### '위중한 인질' 2명 석방, 맞교환 고수 땀 낙관 어려워

국의 아프간 주재 대사가 탈레반측과 접회 접촉을 통해 협상 일정을 잡고 있다고 3일 보도했다.

양측이 이미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이고 인질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병세가 중한 여성인질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협상은 빠르면 3일 중 개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접촉이 이뤄질 장소이다. 양측 모두 서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곳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유력한 협상 장소는 아프간 가즈니주의 부족 원로들이 보장하는 장소 같은 이른바 '중립지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협상테이블에는 우리측은 강성주 아프간 주재 대사와 문하영 본부대사가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탈레반측에서는 몰라 사비르 나시르 사령관과 이번 인질극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몰라 압둘라 부사령관이 거론된다.

◇협상 전망=우리 대표단에서는 피랍자들이 의뢰봉사를 나온 민간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석방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가 들어줄 수 있는 요구사항을 제시하라고 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로 예정된 아프간 주둔 한국군 철수를 재확인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인질들을 석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리적 대가'를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외교가의 전망이다.

반면 탈레반측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인질과 동료죄수 맞교환' 요구를 쉽게 거두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에 따라 양측의 접촉이 타결보다는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아프간 정부는 이른바 군사작전을 위한 여론몰이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하지만 탈레반측에서도 수감자 석방이 우리 정부가 직접 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한걸음 물러선 제안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양측간 대면협상에서 피랍자 전원 석방을 바로 이끌어내기는 어렵더라도 병세가 중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인질 2명의 우선 석방안이 논의되고 결과도 좋은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 시설

## 광주비엔날레 새 이사진에 바란다

신정아 파문으로 파행을 거듭해온 광주비엔날레가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했다. 광주비엔날레는 3일 당연직 이사 8명과 선출직 이사 12명 등 모두 20명으로 제 8대 이사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일부 단체들이 선출과정의 불투명성 등을 들어 새 이사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 이사진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신정아 사태를 수습하고 새 이사장 선임 등 조직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2008년 광주비엔날레까지는 1년 남짓의 시간밖에 없다. 더 이상 혼란과 파행이 계속된다면 내년 비엔날레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비엔날레의 개혁과 혁신도 새 이사진의 몫이다. 그동안 광주비엔날레는 정체성과 조직, 운영방식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신정아 사태도

비엔날레 내부의 오랜 불협화음이 빚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새 이사진은 열린 조직이 되어야 한다. 미술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민 등 다양한 계층과 조직 내부 간의 연로가 트인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미술계나 시민단체가 즐거차게 요구해온 이사 임기 제한 규정과 당연직 이사 축소 등 정관 개정문제는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환부는 빨리 도려낼 수록 후유증이 적은 법이다.

총감독 선임방법과 사무처 조직 개편 등도 미술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무엇보다 광주비엔날레에 지역미술인과 일반 대중들은 행사의 조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 이사진 구성이 출범 이후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광주비엔날레가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한·탈레반 '대면협상' 석방교섭 물꼬 트이길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의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탈레반 측과 직접협상 내지 대면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대면접촉을 위한 대표단은 이미 꾸러졌고 장소를 정하는 일만 남았다는 게 외신의 보도다. 모든 석방협상이 담보상 태를 보이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의 직접협상 시도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정부가 탈레반측과 직접협상을 시도하기까지는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무장단체나 테러조직과 직접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나 아프가니스탄 정부만을 바라보고 있기에는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 인질 2명이 이미 살해됐고 나머지 21명의 안전도 기약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탈레반 측은 여성 인질 2명의 병세가

위중하다면서 이들과 탈레반측 수감자 2명을 맞교환 하자는 제의를 해왔다. 탈레반의 제의를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여성 인질 2명을 우리가 직접 치료하는 문제는 협상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생명이 위중한 여성 인질의 치료를 위해서는 어떤식이든 인질을 직접 대면 할 것이고 이럴 경우 자연스럽게 탈레반측과의 직접대면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태해결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갖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방안은 모두 수용하기를 탈레반측에 촉구한다. 직접 치료가 어렵다면 의약품과 생필품의 전달 만이라도 가능토록 해 줘야 할 것이다.

정부의 대(對)탈레반 대면협상 시도가 석방교섭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검찰 심성민씨 부검 결과

#### "총상 사망...고문 흔적 없어"

아프가니스탄 무장단체에 살해된 심성민 씨의 머리에 2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했으며 고문이나 가혹행위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여 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심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심씨는 머리 관자놀이 부근을 관통하는 2발의 총상을 입고 즉사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검시과정에서 발견된 오른쪽 어깨와 왼쪽 눈 출혈 등은 생명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으며 뒤통수 상처는 총알이 스친 흔적으로 보이고 아래턱 골절은 총알이 머리를 관통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추정됐다.

심씨의 시신은 비교적 깨끗한 상태였으며 고문이나 가혹행위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아프간 인질 무사귀환 기원 '평화 나무' 광주YMCA와 광주YWCA 등 광주지역 기독교 4개 단체 신도들이 3일 오전 광주시 동구 금남로 광주YMCA 백제실에서 아프가니스탄 인질들의 무사 귀환을 축구하는 시국기도회를 마친 뒤, 무사 귀환 염원을 적은 흰 종이를 나무에 매는 '평화의 나무 만들기' 행사를 갖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김한길계 의원 19명 민주 탈당

#### 기초단체장 7명도 탈당대열 합류

중도통합민주당 김한길 공동대표 등 중도개혁통합신당계 의원 19명이 3일 집단 탈당했다. 김 대표 등 통합신당계 의원들은 이날 조찬 회동을 갖고 탈당 방침을 확정된 뒤 오후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로인해 통합민주당은 잇따른 탈당으로 인해 34석의 원내 제3당에서 9석의 미니정당으로 전락하게 됐다.

한편 통합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 7명도 이날 탈당 대열에 합류했다.

통합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5명 중 유태명 동구청장과 전주인 서구청장, 송광운 북구청장 등 3명이 대통합민주당 참여를 위해 탈당했다. 이와 함께 김종식 안도군수와 서삼석 무안군수, 서기동 구례군수, 박연수 진도군수 등 4명도 이날 열린우리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李-朴 '경선룰·금품살포' 난타전

## 朴측 "선호도' 강행 땀 경선불참할 수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이 2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측간의 무차별 난타전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금품살포설, 흑색선전 배후 연계설 등을 놓고 상대방을 정면 공격, 경선전이 혼탁·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달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 방법으로 '선호도' 방식이 잠정 결정된데 대해 박 전 대표측이 "절대 승복할 수 없다"며 경선불참 등 '중대결심'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서 주목된다.

박 전 대표측은 3일 이 전 시장측을 겨냥해 흑색선전 폭로 배후설을 제기하는 동시에 금

권선거 공세를 이어갔고, 이 전 시장측은 박 전 대표측의 금품선거 유도설을 흘리며 영남대 부정입학 비리 의혹 등으로 반격했다.

박 전 대표측 김재원 대변인은 박 전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구속된 김해호씨가 이 전 시장측 측근 인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단서로 검찰 수사에서 포착됐다는 보도와 관련, "검찰 수사를 통해 정적적 음모와 추악한 배후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측 진수희 대변인은 "박 전 대표측은 3일 이 전 시장측을 겨냥해 흑색선전 폭로 배후설을 제기하는 동시에 금

권의 전횡"이라고 일축했다.

양측은 전날 전문가위원회에서 '선호도' 방식으로 잠정 결론낸 여론조사 방식과 관련해서도 감성적인 공방을 벌였다.

이 전 시장측 박영준 대변인은 "그동안 우리는 당 경선관리위원회로부터 불리한 결정을 받았지만 무조건 따라갔다"면서 "유리하면 원칙적이고 불리하면 반칙이나"고 비난했다.

반면 박 전 대표측 김 대변인은 '중대결심' 가능성을 흘리며 "5천표 정도라도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데 지지도나 선호도냐에 따라 5천표 이상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만큼 이 전 시장측 주장대로 간다면 경선 참여가 맞는지 고려할 문제"라고 거듭 경고했다. /연합뉴스

## 빛의만평

- 김중두

안팎으로 이게 뭐니까?!

# 광주·전남혁신도시 조성 차질

## 주민들 보상이 인상 요구...지장물 조사 또 '스톱'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조성되는 나주 혁신도시 사업이 혁신도시 부지인 금천·산포면 일대 편입지역 주민들의 보상이 인상 요구에 따라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토지공사와 광주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등으로 구성된 나주혁신도시사업단은 지난 5월 재개된 나주혁신도시 지장물 조사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지난달 13일부터 전면 중단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나주혁신도시 토지보상 작업은 지난 4. 5월 주민들의 반대로 40여일간 지장물 조사가 중단된 데 이어, 최근 또 다시 20여일간 작업이 중단되면서 토지보상 절차는 물론, 10월 착공 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

주민들은 혁신도시 예정지의 토지 보상이가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게 책정돼 있다며 실거 래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주민들을 위한 임

시 주거단지 조성 등 혁신도시 예정지 내 묘지 지정부 지 확보 등을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주혁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김춘식 위원장은 "지난 2005년 이후 전국의 혁신도시 공시지가가 평균 2~3배 오르는 사이 나주는 1.2배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업단측은 실제 보상이 책정이 아닌 지장물조사 단계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에 대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나주혁신도시의 땅값은 지난 2004년을 기준으로 평균 2.3배 가량 오르는 등 타 혁신도시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며 "10월 착공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감정평가법인 선정 등 향후 토지보상을 위한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범여대선주자들, 孫 '광주발언' 협공

범여권 대선주자들은 3일 순화규 전 경기 지사의 '광주발언'과 관련, 범여권 정통성을 문제 삼으며 협공을 펼쳤다.

손 전 지사가 이날 광주에서 "신당이 아직도 '80년 광주'에 갇혀선 안된다"면서 "광주정신은 광주를 털어버리고 대한민국, 세계를 향해 뻗어갈 때 빛날 것"이라고 말한 것이 빌미가 됐다.

일부 주자들은 5일 대통합민주신당 창당대회 때 손 전 지사의 정체성 문제를 지적한다는 방침이어서 손 전 지사에 대한 협공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천정배 의원은 논평에서 "일전에 '광주정신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는 말장난으로 놀라게 하더니 이번에는 '광주를 털어버려야 한다'라는 경악스러운 발언으로 본심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정동원 전 우리당 의장측 김현미 의원은 논평을 통해 "광주정신이 담고 있는 정의, 인권, 평화 정신은 21세기에도 더욱 발전시켜야 할 과제에 대해 대한 평화·애국은 광주와 민주개혁세력을 모으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해찬 전 총리측도 "광주정신은 극복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계속 안고 가야 할 대상"이라면서 "광주정신을 실현하는 길은 일자리라"는 언급에 대해서도 "실업 문제 해결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긴 하지만 논리박약이 심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 전 지사측 배종호 대변인은 "광주정신을 승화해 미래로 나아가자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의도적으로 의미를 왜곡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일축했다. /연합뉴스

## "광주 지원동 양민학살 사실 가능성 높아"

### 진실화해위, 녹취록 분석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3일 "한국전쟁 당시 광주 동구 지원 동에서 양민 집단학살과 매장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진실화해 위는 유족과 참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들과 면담을 통해 집단학살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으며 지난달 12일에

는 현지를 답사했다.

진실화해 위는 또 당시 가해자의 진술을 기록한 녹취록도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유해발굴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광주 지원 동 양민학살 사건은 1951년 1월 국군이 이 지역을 수복한 뒤 경찰이 주민 20여 명을 인민군 부역 혐의로 몰아 집단 총살한 뒤 암매장했다는 사건을 말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略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안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시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78)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